

《부모님 자서전 써드리기 공모전》

나를 이뤄내는 것들



- 학 과 : 문예창작과
- 학 번 : 32161150
- 이 름 : 김 찬 희

목 차

- 01. 소안면 미라리 재임이네 둘째 딸, 이현
- 02. 나의 반려자 나의 남편, 정국
- 03. 나는 식모인가 식구인가, 시택
- 04.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었기에, 부도
- 05.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섯 명의 딸
- 06. 나의 꿈을 찾아 공부를 시작하다, 검정고시에서 대학원까지
에필로그, 엄마의 시간을 기록하며.

< 나를 이뤄내는 것들 >

-부모님 자서전 써드리기-

화자 어머니 신이현

필자 둘째딸 김찬희

오십삼 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책 읽는 것이 좋아 시인이 되겠다던 어린 여자 아이는 어느새 다섯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도시 남자와 결혼하겠다던 포부는, 같은 섬 출신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잊혔다. 어느 날 어린 시절 꿈꾸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나를 보게 되었다. 나를 지나갔던 수많은 꿈과 사람들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온, 지금 지난날을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즐겁다.

01. 소안면 미라리 재임이네 둘째 딸, 이현

어른들은 나를 ‘이혀이-’라고 불렀다. 소안도를 떠나 결혼을 하기 전까지 마을 어른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말이 ‘재임이네 이혀이’였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엔 그 말이 그렇게나 이해가 안 되었다. ‘재임이네 이혀이’라고 하였지만, 집에는 ‘재임’이 없었다. ‘재임’은 나의 어머니의 성함이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녹녹치 않은 환경에 줄줄이 딸린 자식들을 서울로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어머니는 나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웠다. 놀기 좋아하는 첫째 딸과 집에 들어오지 않는 셋째 딸보다는 믿음직스러워 그러셨던 것 같다. 넷째와 다섯째인 아들 둘은 서울로 데리고 올라간 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소안도로 내려왔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날엔 항구로 나가 오고 가는 배를 몇 번이나 마주했었다. 제대로 된 대합실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다만 그곳에 쭈그려 앉아 잇을까 두려웠던 어머니의 얼굴을 기다렸다. 사라져가는 배 뒤편무늬를 쫓다가 기다리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나기보단 웃음이 났었던 것 같다. 그 때만큼은 어머니를 따라가 질투를 유발했던 남동생들조차 반가웠다. 어머니는 양 손 가득은 물론, 머리에도 한 보따리 짐을 가지고 돌아왔었다. 그 안에는 난생처음 보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새하얀 내복이었다. 흔하디흔한 내복이 왜 기억에 남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세탁기는 무슨 빨랫비누조차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어린아이 손으로 세탁하다 보면 새것처럼 하얗게 되지 않았다. 그것을 보며 내심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인지 새로운 내복을 선물로 가지고 오신 것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보따리 안에서 꺼내 준 새하얀 내복은 아직도 내가 어린 시절 받은 것 중 최고의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에는 아직도 내가 살던 고향집이 그대로 남아있다. 비록 새로 세운 집이기는 하지만 터는 온전히 남아 있다. 그 집에는 현재 나의 어머니와 두 남동생 식구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다. 어린 시절의 상황과는 반대가 된 것이다. 문득 이 사실을 떠올렸을 때 웃음이 나왔다. 외국보다 멀게 느껴졌던 서울은 사실 별 다를 것 없는 곳이었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나와 별 다를 것 없이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남편의 식사는 무엇을 챙겨주어야 할지, 타지에 나가 공부하는 자식이 밥을 굶지는 않을까, 미국으로 가 공부를 더 하고 오겠다는 자식에게는 무엇을 더 해줘야 할지 걱정하는 현재 나의 삶과 같이, ‘가족’이라는 우주에서 수영하는 행성처럼 어머니도 현재 나의 역할과 비슷했을 것이다.

02. 나의 반려자 나의 남편, 정국

남편과 나는 초등학교 동문이었다. 여덟 살부터 열두 살이 될 때까지 남편과 나는 소안도에 있는 작은 분교에서 공부를 배웠다. 남편이 부산으로 전학을 가면서 우리는 잠시 헤어지게 되었다. 그때 연애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거북손 따기를 좋아하던 평범한 남자애였고, 나는 흔히 말하는 예쁘장한 얼굴에 새침데기 같은 아이였다. 차갑게 생긴 인상 탓이었는지, 남자애들은 별로 다가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도시로 나간 남편과 달리 나는 완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다. 도시 근처에는 쉬이 갈 일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동네에 살던 오빠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지금은 흐릿한 얼굴이지만, 이름만은 기억이 난다. 민철, 박민철이라는 두 살 많은 오빠였다. 민철 오빠는 나에게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했다. 당시 오빠의 부모님이 미국에 큰 사업체를 투자한 상태였다고 했다. 당시 시골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미제 초콜릿이며 신기한 물건들이 오빠의 주머니에서 나왔었다. 나 또한 오빠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면 결혼까지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오빠, 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여권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이유였다. 지금처럼 발급받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조차 많이 가보지 못했던 나에게 ‘미국’은 상상의 세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었다. 미국으로 가면 다시는 나의 부모님을 못 볼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다. 오빠는 아쉬움을 표하며 미국으로 떠났다. 내가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오빠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 나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지내던 곳이었기에 궁금하다는 이유였다.

김발을 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만류와 서울은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그냥 서울로 올라왔다. 당시에는 섬을 벗어나야 무엇이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압감 같은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렇게 올라온 서울에서 공장에서 경리일을 하며 지금 나의 남편, 정국을 만나게 되었다.

드라마나 영화처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장 근처에 있던 중국집에 들어갔을 뿐이었다. 그 곳에 정국이 있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군대를 가기 전에 알바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얼굴을 알아보지 못 했었다. 정국이 먼저 다가와 나에게 인사를 했다.

“저... 너, 소안초등학교 신이현 맞아?”

의문을 갖고 다가오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 나이대의 보통 남자애들과 달리 남편의 눈은 춘장을 발라둔 것처럼 까맣게 빛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장소가 중국집이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처음에 남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출신을 알고 있는 낯선 남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긍정의 말이 나 부정의 말을 하지 않는 내 앞에 앉아 남편은 반가운 듯 손을 내밀었다.

“나야, 김정국! 파란 지붕 집 둘째 아들! 기억 안 나?”

소안도에는 파란 지붕을 가진 집이 많았다. 대부분 파랗거나 주황색의 지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라는 말에 기억이 났다. 고향에서 떠나면 서울의 한 구석에서 초등학교 동문이었던 정국을 만나게 되니 정말 반가웠다. 얼굴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그날 나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정국이 가끔씩 공장으로 군만두나 탕수육을 들고 찾아왔다. 왜 자꾸 찾아오냐는 말에 정국은, 그냥 같이 먹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다. 부담스러웠다. 탕수육이나 군만두가 저렴한 음식이 아니었을 뿐더러 공장 아저씨들이 자꾸 놀렸기 때문이었다.

“신 양아~ 남자친구 생겼나?”

“신 양아 결혼하면 이 아저씨가 가서 국수 먹어줄게!”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던 정국은 결국 그 해 여름 즈음에 군대를 가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난 후 자대배치를 받았다는 편지가 공장 앞으로 한 통 도착했다. 그 전까지는 연애하거나 사랑한다는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한 자 한 자 정성들여서 쓴 것이 분명한 편지지에는 작은 꽃잎 하나가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나 소설을 좋아하던 나에게 그 꽃잎은 하나의 시구절과 같이 다가왔다.

바싹 마른 노란 꽃잎을 받은 나는 정국에게 답장을 하기 시작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끔씩 휴가를 나오면 만나기도 했었다. 둘 중 누구도 사귀자는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썸’을 타는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정국은 면회를 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군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날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갔다. 공장에는 월차를 내고 세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파주의 군부대를 찾아갔다. 그 곳에서 정국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 정국은 나만 불렀는데,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아들을 보기 위해 파주까지 올라오신 것이었다. 정국의 부모님과 막내 동생, 그리고 내가 그 곳에서 어색한 첫 만남을 갖게 되었다. 어째서인지 상견례 같은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럼, 정국이 제대하면 결혼해야지?”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정국은 옆에서 그런 것 아니라고 했지만, 내심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대로 사귀자는 말을 듣기도 전에 결혼 이야기가 먼저 오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정국과 나의 결혼이 결정되었다. 정국의 제대까지 일 년이 넘게 남은 시기였다. 나의 부모님은 당연히 싫어하셨다. 아직 남자 친구도 아닌 남자가 군대에 가 있는 것도 모자라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하면 벌어들인 돈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게 사실이기도 했다. 정국은 대학도 가지 않은 채 가끔씩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국의 부모님이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주시기로 했었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엄청나게 사랑했던 남자는 아니지만, 편지 사이사이에 꽃잎을 끼워주는 남자라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나는 정국이 제대한 지 6개월 후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반대하는 부모님과, 하루빨리 날짜를 잡자는 시부모님 사이에서 시간은 화살촉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결국 나는 1990년 1월 14일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시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가정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03. 나는 식모인가 식구인가, 시댁

시부모님은 집을 마련해주셨다. 다만 그 집이 나와 남편만의 집이 아니었다. 그 집은 남편과 나, 시부모님, 남편의 막내동생까지 총 다섯 명이 사는 집이었다. 게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큰 아주버님 댁 식구 네 명도 매일같이 와서 식사를 함께 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상관없이 나는 아홉 식구의 밥을 해야 했다. 다니던 공장은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어야 했다. 남편은 큰 아주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 나

는 만난 지 며칠 안 된 시댁 식구들과 하루 종일 붙어 집안일을 했다. 신혼의 달콤함을 느낄 시간도 기운도 없었다. 농경 시대에 일꾼으로 시댁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잘 살아내야 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했던 결혼이었기에 더욱 잘 살아내고 싶었다. 사실 몇 번이고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하고 싶었다. 투정 부리고, 보고 싶다 말하고 싶었다.

식모와 같은 생활은 3년 넘게 지속되었다. 결혼하던 해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으니, 열 명의 식구의 밥을 3년간 지었던 것이다. 처음 우리 집을 갖고 나왔을 때의 그 쾌감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 두 개의 방이 있는 아담한 아파트였다. 남편은 여전히 아주버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매일 같이 시부모님을 찾아가 아침을 먹고 청소를 해야 했다. 그럼에도 돌아갈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이후 남편은 수산업 전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완전히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다. 분당으로의 이사였다. 더 이상 열 식구의 밥을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

04. 더 이상 먹을 것조차 없었기에, 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은 갑자기 발령이 났다며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말했다. 남편의 군부대가 있던 동네였다. 살아본 적 없는 동네였지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파주로 이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횟수를 줄였다. 야근은 늘어났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이내 남편이 한 달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한 나날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바람이 난 것인가 했다. 원래 노래와 춤을 좋아했던 남편이니까, 노는 것의 재미를 알아버린 것이 아닐까 했다.

이런 생각을 한 다음부터 남편은 월급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 사람 몸집만한 봉투 한 가득 팔뻑을 담아오거나 여자 애들 머리에 꽂는 핀과 머리띠 같은 것을 잔뜩 담아서 가지고 왔다. 처음 봉투를 가지고 오던 날 남편의 얼굴을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남편 아래로 딸 네 명과 아내, 다섯이나 딸린 식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며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그 때의 참담했을 심정은 아직도 가히 가늠이 되지 않는다. 남편은 시한폭탄을 안은 것 같은 표정으로 나에게 그 봉투를 건넸었다. 그 봉투를 받아들었던 나의 표정도 좋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앞에 그 봉투는 너무 무겁게만 다가왔었다. 남편은 나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멍하니 나만 바라보았다. 그 얼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가만히 남편을 안아주고 아무런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은 계약했던 모든 계약금을 들고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다. 회사는 추를 달고 추락하는 배처럼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당장 그 달의 월급은 물론이고, 밀렸던 반 년 간의 월급도 받지 못 하고 쫓겨났다. 집으로 들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남편이 월급 대신 쥐어줬다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온 것이었다. 우리는 원망할 곳 없는 그림자를 쫓아야 했다. 남편은 그 후 도망간 사장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이미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에 쉬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림자라도 밟으려고 하는 행위였다. 남편이 사장을 잡으러 떠난 이후 나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아이를 낳으면서 이미 10년 넘게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시기였다. 나는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물어 집에서 부업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막내였던 지금의 넷째(그 때는 아직 다섯째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유치원도 가지 않은 어린 나이였다. 나는 그 아이를 홀로 맡길 곳이 없어 집으로 부업거리를 가지고 들어왔다. 종이 박스 접기, 곰돌이 인형 끼우기, 인형에 옷 입히기 등등 안 해본 부업거리가 없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날개의 면도칼을 다섯 개씩 묶음 포장 하는 일이었다. 칼날까지 끼워진 새파란 면도칼을 시중에 나갈 수 있도록 포장하는 것이다. 아직 어렸던 나의 딸들은 종종 나의 부업을 도와줬는데 면도칼을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건은 먹을 것이 없어 옆집으로 라면 두 봉지를 빌리러 갔을 때 터졌다. 나는 텅 비어버린 찬장을 보고 옆집으로 향했다. 딸들과 또래의 남자아이들을 키우는 옆집은 종종 우리 집에 먹을 것을 주고는 했었다.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과 음식을 빌리러 가는 길은 발걸음 떨어지는 속도부터 달랐다. 괜히 나는 천천히 손을 올려 문을 두드렸었다. 환하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멧쩍게 라면 두 봉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울려 들어왔다. 나는 그대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넷째 아이의 손가락을 잡고 있는 첫째가 보였다. 면도칼을 포장하는 언니들 사이에서 넷째가 놀다가 손가락을 베어버린 것이었다. 아이의 여린 손가락 사이로 너무 붉어서 위험한 피가 흘러내렸다. 나는 그대로 아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어디를 가야할지 모르면서 일단 나간 것이었다. 뛰어나가는 나를 보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있었다. 당황한 나를 대신하여 넷째의 손가락을 씻기고 상처 위에 약을 발라주었다. 상처는 깊지도 길지도 않았었다. 다만 너무 여린 손가락이라 피가 많이 흘렀던 것이었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집,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어리기만 한 아이들은 나에게 너무 버거웠다. 그래서 말일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제 사장은 포기하자고 말을 했다. 다시 아주버님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면서 물었다. 그 때의 내 감정은 오로지 ‘힘들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남편은 다시 아주버님 아래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작은 수산물 업체가 일터였다. 보수는 적고, 할 일은 많았지만 밥은 먹을 수 있는 나날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주버님 밑으로 들어가 일한지 오년이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은 완전히 사업을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풍족한 삶이 지속되고 있음에 매우 감사한다.

05.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섯 명의 딸

나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장학금이란 장학금은 모두 가지고 오는 첫째, 38명 중에 36등을 해오고 뒤에 두 명이나 있다며 즐거워하는 둘째, 자신이 하고 싶은 디자이너 일이 뚜렷한 셋째, 아직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 무슨 공부를 해야 즐거울 지 찾지 못 한 19살 넷째, 장래희망이 ‘돈 많은 백수’라는 막내까지 각양각색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모두 제각기 색의 굉장히 뚜렷하다. 어떻게 한 배에서

이렇게나 다른 아이들이 나왔는지 나조차도 신기하다.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으니 아이들이 모두 비슷할 것이라고, 그래서 키우기 수월하지 않느냐고 종종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아이가 두 명 있는 집만 보아도 성향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섯 명이나 있으니 그의 세 배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자아이들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하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문제보다 아이를 가졌을 때 생긴 상처가 더 크게 남아있다. 요즘은 여성의 인권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사상’이 세상에 팽배했었다. 게다가 요즘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자라는 말도 없었다. 오히려 ‘하나를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 세상에 아이를 다섯이나, 그것도 줄줄이 여자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험한 말을 들었는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짐작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마음 속 깊이 남아있는 사건이 있다.

넷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일이다. 1999년의 끝자락에 닿아 있을 때였다. 나는 20세기의 마지막 연말을 즐기기도 벅속의 아이에게 치중해 있었다. 그날은 출근한 남편 없이 홀로 셋째 아이를 껴안고 병원으로 향했었다. 당시 셋째 아이는 세 살배기 어린 아이였다. 병원에 도착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옆으로 지긋한 연세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다. 셋째 아이와 내 배를 번갈아 보더니 한 마디 했다.

“벅속에 있는 게 둘째? 이번엔 남자애여야 할 텐데 그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섞은 적도 없고 병원에서도 대기를 하면서 그 때 처음 본 사람이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벅속에 있는 아이는 넷째예요. 다 여자아이고요.”

그때 아주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말을 덧붙여서 나에게 말했다.

“어머, 무식하다 정말, 미쳤네. 요즘 세상에 누가 애를 넷이나 그것도 여자애만?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혼자 병원을 오지, 쫓쫓.”

이 말은 아직까지 나의 안에서 잊히지 않는 상처의 말이다. 남편은 출근을 했었고, 나는 혼자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자녀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법도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따지려고 했지만 내 무릎을 베고 잠을 자던 셋째 덕분에 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아주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해주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수학을 못 해서, 그냥 낳았네요. 근데 우리 남편은 좋아만 하더라고요.”

웃으며 대항하는 나의 말이 본인을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아주머니는 곧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나는 내내 기분이 나쁜 채로 있다가 집에 돌아와야 했다. 괜히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아직도 세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내가 아이를 다섯, 그것도 딸만 낳았다고 하면 모두들 이렇게 묻는다.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았나봐?”

아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오는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은 것이었다. 아이를 지우는 일은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낙태를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나에게서는 그럴만한 사정이 없었고 당연히 아이들을 낳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셋째까지 생겼을 때 시댁에서도 아이를 지우자는 말이 나왔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 집이 없다는 것이었다. 알고 있었다.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였고 둘도 많다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생긴 아이를 지울 만큼 용감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때 나와 남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만약 혹시라도 그때 아이를 지웠더라면, 지금 내가 누리는 행복의 절반만이 나와 함께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그 때 지웠던 아이를 회상하며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보다 나의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 많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또한 행복이다.

과거에는 애를 많이 낳는다고 무식한 여자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애국자’라는 말을 듣는다. 한 시대에 이렇게 극과극의 반응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애국자’라는 말을 들으려고 아이들을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애국자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06. 나의 꿈을 찾아 공부를 시작하다, 검정고시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즈음이었다. 스물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었기에 공부를 중간에 포기했어야 했다. 회계 쪽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나름 잘 다뤘었는데, 미루고 미루다보니 요즘에는 간단한 셈도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을 가려면 기간이 만료된 고등학교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먼저 시작했다. 매일같이 학원을 가고, 집안일을 하고, 숙제를 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첫째와 둘째가 많이 도와줬다. 첫째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집안일을 모두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매일 늦은 저녁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남편도 나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아내가 밥도 못 챙겨주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으나, 검정고시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오는 일을 일 년 가까이 해주었다.

그렇게 검정고시를 치는 날이 되었다. 검정고시가 어려워지기 바로 전 주, 일요일이었다. 새벽부터 준비를 마치고 모든 가족이 나를 배웅해주었다. 남편은 어느 날과 같이 시험장으로 나를 데려다주었다. 그 전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어젯밤 사왔다며 우황청심환을 건네었다. 고맙게 받아들였지만 먹지는 않았다. 우황청심환을 먹으면 기분이 너무 가라앉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다독이던 남편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앞에 서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는 후련함이 몰려왔다. 동시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기다려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도 못 하고, 차에 타자마자 잠들어버렸다. 시험이 끝나고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 동안 아이들과 보내지 못 했던 시간을 보충했고, 남편에게는 아내의 밥을 먹여주었다.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성적표를 함께 보자는 것이었다. 일부러 성적이 나오는 날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괜한 긴장은 사람을 지치게 만드니까. 학원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남편을 만류하고 버스를 탔다. 가채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이 더 느껴졌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성적표를 건네주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전국 1000여명에 가까운 응시인원 중에 15등을 한 것이었다. 수학에서 두 문제 틀린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에서는 모두 만점을 받았다. 그동안의 피로와 걱정이 물밀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잠 못 이루었던 밤들이 스쳐지나가는 것 같았다. 정말 행복했다. 정말로.

이후 나는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다. 검정고시 성적이 좋긴 해도 만학도이기 때문에 젊은 두뇌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던 중 옛 은사를 만나 미국의 한 대학교를 추천받았다. 덕분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을 하였고, 지금은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이제 1년만 더 공부하면 석사학위까지 따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던 ‘상담’ 혹은 ‘이야기’하는 일을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다.

에필로그, 엄마의 시간을 기록하며.

엄마는 바빴다. 원하던 공부를 시작했고, 그에 따라 대학원까지 진학하면서 더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일 년에 몇 번이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신다. 나 또한 대학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니게 되면서, 엄마와 만날 시간이 더욱 적어졌다. 그런데 이번 자서전을 집필하기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 주말마다 집에 올라가게 되었다. 엄마는 물론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엄마와 아빠의 연애편지를 듣는 것이 재미있었다. 두 분은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 때로 돌아간 듯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처음부터 부모님이셨지만 두 분은 ‘부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구나 처음부터 좋은 자녀, 좋은 부모인 사람은 없다. 함께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이번 자서전을 쓰면서 알아갈 수 있어 좋았다.

어마는 딸만 낳았다. 할머니가 무어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많다. 그래도 그때마다 막아주는 아빠와, 나름대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엄마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아들보다 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엄마는 딸을 바라거나 아들을 바란 것은 아니고 다만 사랑해줄 수 있는 자녀를 원했다고 하셨다. 엄마에게 사랑받고 있는 우리,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나는 참 좋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없이 행복할 것 같다. 지금껏 함께 잘 견디고 살아온 만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